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부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도로 '부산어린이집'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피해를 보았으며 조정신청, 알림 기사로 조정성립

A통신사 외 8개 인터넷매체는 '부산시 수영구 소재 모 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은 언론사가 보도의 제목을 '부산 어린이집'이라고 표기하여 '부산어린이집'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들은 제목에 쓰인 '부산 어린이집'은 고유명사가 아닌 지역명이고 보도 본문에 사건 발생 어린이집의 주소, 원장의 성과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중재부는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등으로 보도의 제목만을 본 독자들은 오해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도 시 주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알림 형식의 보도를 조정안으로 제시,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 성희롱범죄 기사에서 개인의 트위터 아이디를 동의 없이 노출, 100만원 배상

B주간지는 유명한 인권운동가의 성희롱 범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해여성인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가 나온 화면을 캡처해 이를 동의 없이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사건을 모르고 있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보도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중재부는 신청인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혜진 _ 여름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언론사람 7월호 표지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호기심으로 펼친 언론사람의 첫 페이지는 성범죄 보도에 관한 토론회 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TV나 인터넷포털에서 자극적인 성범죄 보도를 접하며 '언론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언론피해 구제기관과 법률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단순히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많은 '언론사람', 주변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네요.

배을순 _ 7월호 <침묵이라는 언어>를 읽고 우리는 흔히 말을 통해야만 서로 의사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는데 반드시 소리로 내는 말을 해야만 상호간 교감과 소통이 되었다고 해서는 안됨도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상대방이 처한 환경과 여건, 상황을 충분히 배려한다면 이는 이미 소통되었다고 보며 침묵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열과 위로도 느끼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와 부적응한 자들의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고 모든 언어들이 침묵 속에서 베일이 벗겨지면서 진실과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면 서로 상대방의 내면과 사실을 다 알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허선숙 _ 모든 내용이 알차고 유익해서 몇 번씩 읽었지만 그 중 여름이어서 그런지 (신 동의보감..여름 식중독 제대로 알고 다스리기)편을 관심있게 읽고 냉장고에 스크랩 해두었습니다. 해마다 더운 여름이 오면 날씨가 무더워 대충대충 먹고 차가운 음식만 찾아서 설사로 고생을 많이 하곤 했는데 이렇게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설사의 원인과 치료 및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물은 안전하게 끓여먹고 생수를 사용할 것, 위생처리가 잘 된 얼음 사용, 음식을 먹기 전 손 씻기...등등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많은 공감을 느끼며 올 여름에는 수칙을 꼭 지켜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해 봅니다.